

“K리그, 권익 좀더 개선해야”

이근호 프로축구선수협회장, 리그 개막 미디어데이 참석 발언
선수협 발족 이래 첫 현역 회장...“한가지라도 개선 바람있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하나원큐 K리그1 개막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울산현대 이근호가 포부를 밝히고 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이근호(34)는 2019년 들어 두 가지 중책을 맡았다. 팀에서는 주장 완장을

울산에서 젊은 선수들을 보듬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을 이어가는 한편,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염기환(수원) 조수혁(울산) 등 선수협 이사진을 불러모아 선수 권익 향상에 대한 이사회를 열었다.

이근호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9 하나원큐 K리그1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선수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이사회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서 “선수 동의 없이 트레이드되는 부분이나 계약기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연맹도 많은 노력을 해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선

수들 권익을 위해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근호는 한국에서 선수협이 발족한 이래 현역 선수로는 처음으로 회장이 됐다. 일본 프로축구(J리그)에서는 현역인 다카하시 히데토(사간 도스)가 3년째 회장을 맡고 있지만 한국에선 첫 시도다.

이근호는 “부담스러울 밖에 없다”며 웃었다.그러면서도 “어린 선수들을 보고 이 자리를 맡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한 가지라도 개선된다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다행히 많은 선수들이 동참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선수협 회장과 더불어 울산 주장으로서도 소임을 다 할 각오다. “이번 시즌 보강이 잘됐다. 호뭇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감도 든다”면서 “지금 작은 부상이 있어 아직 경기에 나서진 못하지만 건강하게 복귀해 시즌 끝까지 잘 치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근호가 속한 울산은 3월 1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프로축구 이탈리아 세리아A 헬라스 베로나의 이승우.

이승우, 세리에B 라운드 MVP 선정

리그에선 3경기 연속 선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B(2부 리그) 엘라스 베로나에서 뛰는 이승우(22)가 25라운드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26일(현지시간) 이승우를 2018~2019 이탈리아 세리에B 25라운드 레드볼B 베스트로 뽑았다.

레드볼 B-베스트는 세리에B를 주관하는 레가 세리에B와 레드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공동 주관하는 상이다. 독자 투표로 결정된다. 이승우는 지난 23일 열린 살레르티나와 리그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장, 88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팀은 지알파올로 파찌니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 매체는 ‘파찌니의 골로 이날 승부가 결정됐지만 가장 아름다운 플레이는 사무엘 구스타프손에게 건넨 이승우의 패스였다’면서 “꼭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았다”고 전했다.

이승우는 27일 열린 세리에 B 26라운드 레체와 홈 경기에도 선발 출장해 88분을 소화했다. 하지만 1-2골 패배를 막을 수 없었다.

전남드래곤즈, 2019 출정식 & 팬즈데이 성료

300여명 팬들 · 선수단 50여명 참여...홈 개막경기 무료



전남드래곤즈가 최근 광양시 금호동 어울림체육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300여명의 팬들과 선수단 50여명이 함께한 2019시즌 출정식 & 팬즈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행사장에는 팬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FA컵 우승트로피 전시 부스와 올 시즌부터 새롭게 선보인 멤

버십 판매 부스를 마련하여 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남드래곤즈 조정명 사장은 출정식에 참여한 팬들에게 구단의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구단의 비전인 ‘팬들과 함께 행복한 명문구단’을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담은 2019년 캐치프레이즈 ‘ReStart 2019’을 공개했다.

또한 조정명 사장은 “재미있는 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료 관중도 늘어나고 광고 스폰도 늘어나는 프로축구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유료관중 증가를 통해 늘어난 입장 수입은 다시 관중들을 위해 재투자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참여하신 팬들에게도 “전남드래곤즈의 다양한 경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멤버십에 가입해 달라라는 것과 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료 티켓을 구입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해 전남드래곤즈 강등으로 인해 많 아프셨을 팬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전남드래곤즈 구장에서는 무료 티켓이 없다는 약속을 위해 2019 시즌 홈 개막 경기를 무료 경기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팬과 함께하는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골키퍼팀, 수비수팀, 미드필더팀, 공격

수팀으로 나눠 단체출입기를 통해 참여자와 선수 간 친밀감을 높였으며, 우승 팀의 참가자에게는 선수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내놓은 애장품 중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물로 증정했다. 또한 남은 애장품은 경매를 통해 팬들에게 판매하였으며, 판매된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2부에서는 팬 사인회와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라인을 가졌다.

올 시즌 새롭게 주장을 맡은 최효진 선수는 “올 시즌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90분 내내 끊임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전까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뛰겠다. 또 절대 물러서지 않는 축구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선수들을 대표하여 각오를 밝혔다.

파비아노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다. 승격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는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축구,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축구를 하고 싶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팬들이 경기장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꼭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오승환, 시범경기 첫 등판 ‘1이닝 퍼펙트’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이 올해 첫 시범경기 등판에서 퍼펙트 피칭을 펼쳤다.

오승환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크레일 솔트리버필드 옛 토깅스파크에서 열린 콜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구원 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오승환은 0-2로 끌려가던 4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첫 타자 트레이시 톰슨을 1루수 뜬공으로 돌려세운 뒤 후속 브랜던 반스를 8구 승부 끝에 유격수 뜬공 처리했다. 이어 다니엘 존슨을 1루수 뜬공으로 잡았다.

세 타자를 모두 뜬공으로 가볍게 잡아낸 오승환의 투구수는 13개였다. 이중 스트라이크는 11개였다. 최고 구속은 90.5마일(약 146km)을 찍었다.

오승환은 5회초 리코 가르시아에



게 마운드를 넘겼다. 콜로라도는 지난 시즌 뒤 팀의 든든한 셋업맨이었던 아담 오티비노가 FA 자격을 얻어 뉴욕 양키스로 떠났다. 오승환은 오티비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담 구래군은 지리산산천, 창세마을, 회현사, 선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